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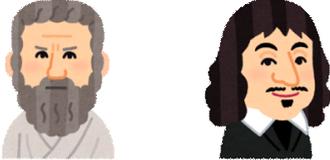


로티의 자유주의 해석학

[수능특강 56P ~ 59P]

PRELUDE 01. 개념 예습

절대적인 진리만을 추구해야 해!



ㄴㄴ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야 해

현대 철학에서는 진리에 대한 개념이 전통적인 관점과는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 과거 철학자들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철학의 중요한 과제로 여겼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과 로티는 이러한 전통적 철학에서 벗어나, 진리를 언어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의미가 본질적으로 언어 게임의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즉, 언어는 고정된 실체를 무조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 의미가 형성된다. 따라서 어떤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언어 게임 속에서 주어진 규칙에 의해 판단될 뿐이며, 절대적 기준에 따라 검증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입장은 과학적 명제조차도 객관적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언어적 규칙 안에서 유용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일 뿐임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실체는 사회적 맥락과 흐름 속에서 이해하여 '사과'라는 단어로 표현될 뿐, 언어에 현실의 존재 자체가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로티 역시 이와 유사한 입장에서, 진리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대화를 통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과학적 이론이 참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절대적 진리에 도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특정한 맥락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철학의 역할은 기존처럼 '절대적 진리'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이 공존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아니 이거 사과라니까요?

물구나무 서서 봐도 바나나임



:: 사과가 뭔지 모름?

그럼 그냥 이거 사과라고 하죠.



이러한 관점은 현대 사회의 다원주의적 성격과도 부합한다. 오늘날처럼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가 공존하는 시대에는 특정한 진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강요하기보다,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비트겐슈타인과 로티의 철학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철학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세계화 시대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PRELUDE 02. 본문 요약

1. 현대 인식론 : 인간이 보편적 이성을 통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인식론.

1) 분석 철학 :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명제를 중심으로, 언어 분석을 통해 철학적 문제를 해명하려는 철학.

2. 주요 이론 정리

이론	철학자	내용
1) 언어 게임론	비트겐슈타인	언어의 의미는 사용되는 맥락(게임의 규칙)에 따라 결정됨.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 자체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언어적 규칙이 설정되어 그 규칙 안에서만 의미가 성립한다는 이론.
2) 전체론	과인	하나의 명제는 다른 명제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단독으로 성립할 수 없음. 각 명제는 전체적인 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입증하며 개별적인 진리 판단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상대화된다고 봄.
3) 로티의 이론	로티	위의 두 이론을 종합함.

3. 로티 : 언어 게임론과 전체론을 바탕으로, 진리를 고정된 실재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산물로 본 실용주의 철학자.

1) 진리 상대성 : 명제의 진리성은 절대적 토대가 아니라 그 맥락과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

2) 거울로서의 마음 비판 : 로티는 인간의 마음이 세상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전통적 인식론('거울 이론')을 비판함.

3) 토대주의 비판 :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기초 위에 진리를 세우려는 입장인 토대주의를 비판함.

4) 실용주의적 진리관 : 명제는 실재 여부를 반영하는지가 아니라 설명력과 예측력 등 실용적 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입장.

4. 해석학 : 다양한 담론을 인정하고, 담론 간 관계를 해석을 통해 파악하는 철학적 접근.

1) 해석학적 순환: 하나의 담론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담론을 참조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구조.

5. 담론 복권 : 분석 철학이 비합리적이라며 배제한 담론들을 철학 논의에 다시 포함시키는 것.

6. 자유주의 규범 : 정의·자유·평등 등은 절대적 기준이 아닌,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유연히 형성된 규범임.

7. 다원주의 철학 : 다양한 담론과 가치가 공존할 수 있으며, 그 사이의 대화를 철학이 중재해야 한다는 입장.

8. 문화 간 대화 :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주체들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며 상호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는 철학적 요청.



[수특 원문 문단별 요약]

현대 인식론은 자율적 주체인 인간들이 보편적 이성을 통해 진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이에 기반한 분석 철학은 철학의 대상을 진위가 명확히 확정될 수 있는 명제로 보고, 인간의 사고를 언어의 의미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철학의 임무로 삼았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자유주의 해석학자 로티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과 콰인의 전체론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기존 철학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였다.

[1문단의 핵심] : 현대 인식론과 분석 철학의 기본적인 전제와 이에 대한 로티의 실용적 해석, 앞으로 등장할 인물들과 그들의 이론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의미가 언어 게임의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언어 게임론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수학이나 자연 과학의 기본 개념처럼 자명하다고 여겨지는 지식도 결국 기존에 합의된 언어 게임의 규칙에 따라 구축된 것일 뿐,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 자체가 필연적으로 실재하는 것은 아니다. 소위 진리라는 것도 언어 게임의 규칙에 기반한 상호 작용의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편, 콰인은 대상에 대한 신념이나 명제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당성을 입증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전체론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물리학자들은 물체의 가속도에 관한 물리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 장치가 질량·시간 등의 물리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실험 장치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다른 물리 법칙들에 의해 보장되며, 이 물리 법칙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실험 장치와 물리 법칙이 필요하다. 이러한 순환 구조 속에서 결국 물체의 가속도에 관한 물리 법칙은 그 정당성을 스스로가 보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콰인은 이처럼 모든 명제가 상호 의존적인 맥락 속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개별 명제들의 진리성이 상대화되므로 이론의 궁극적 토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2문단의 핵심] : 비트겐슈타인은 지식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의해 합의된 요소에 불과하다는 ‘언어 게임론’을 주장했다. 콰인은 전체론을 통해 명제가 다른 명제에 의존하여 정당화되는 구조를 제시, 모든 명제가 이러한 구조 속에 존재하므로 궁극적으로 완벽한 진리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로티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과 콰인의 전체론을 결합하여, 모든 명제의 의미는 그것이 속한 특정 맥락의 게임 규칙에 의해서만 규정되며 그 맥락을 벗어나면 의미를 잃는다고 주장하였다. 현대 인식론은 인간의 마음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며, 이 거울에 반영된 확실한 표상만이 인식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로티는 이러한 거울 개념을 부정하면서, 현대 인식론이 진리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기초에 근거해야 한다는 토대주의적 관념에 얽매어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진리가 고정된 실재가 아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므로, 명제는 절대적 토대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현상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이라는 실용적 가치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철학을 하나의 언어 게임으로 보고 그 유용성을 평가하는 해석학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3문단의 핵심] : 로티는 2문단의 두 이론을 결합, 명제가 언어의 합의 안에서만 성립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대 인식론이 생각하는 진리의 완벽한 측면을 비판하고 명제가 얼마나 실용적으로 세상을 설명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는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로티는 ㉢해석학의 실용성이 전체론적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해석학은 다양한 형태의 담론들을 인정하고, 이를 생산하고 전승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담론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해 나간다. A를 이해하기 위해 B를 참조하고, B를 이해하기 위해 C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담론들 간의 상호 이해를 수반하는 해석학적 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석학은 분석 철학이 비합리적이라며 배제했던 담론들을 전체론의 틀 안에 복권시킬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담론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로티에 의하면, 정의·자유·평등과 같은 자유주의 사회의 규범들은 다양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우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들을 절대적 토대로 삼기보다는, 그것들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철학은 합리성이라는 단일 기준을 고수하는 대신, 다양한 담론들 간의 대화를 통한 진보를 추구해야 한다. 이때 대화는 서로가 의미 있는 주체로 승인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4문단의 핵심] : 해석학은 전체론과 같이 담론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하는 형태를 띠며, 로티는 이에 기반해 절대적 토대에 집착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담론들 간의 교류를 통해 진보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로티의 해석학적 입장은 도덕적 상대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의 다원주의적 성격과 부합하며, 상호이해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철학적 관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세계화 시대에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이론으로서 의의가 있다.

[5문단의 핵심] : 로티의 실용적 입장이 가지는 의의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핵심 정리 퀴즈]**

Q1.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언어 게임에 의해 진리가 구축되는 것이다.

 O / X

Q2. 언어 게임론은 언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실존하도록 만든다.

 O / X

Q3. 콰인은 명제들이 상호 의존하는 관계에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O / X

Q4. 로티는 어떤 이론이나 규범, 명제의 '궁극적 토대'를 도달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O / X

Q5. 로티는 어떤 명제의 객관적인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고 보았다.

 O / X

Q6. 해석학은 분석 철학에 비해 다양한 담론들에 대해 개방적이다.

 O / X

Q7. 로티의 실용주의적 접근은 도덕적 상대주의로 성공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O / X



[수능특강 문제 정리]

현대 인식론은 자율적 주체인 인간들이 보편적 이성을 통해 진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이에 기반한 분석 철학은 철학의 대상을 진위가 명확히 확정될 수 있는 명제로 보고, 인간의 사고를 언어의 의미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철학의 임무로 삼았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자유주의 해석학자 로티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과 콰인의 전체론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기존 철학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였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의미가 언어 게임의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언어 게임론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수학이나 자연 과학의 기본 개념처럼 자명하다고 여겨지는 지식도 결국 기준에 합의된 언어 게임의 규칙에 따라 구축된 것일 뿐,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 자체가 필연적으로 실재하는 것은 아니다. 소위 진리라는 것도 언어 게임의 규칙에 기반한 상호 작용의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편, 콰인은 대상에 대한 신념이나 명제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당성을 입증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전체론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물리학자들은 물체의 가속도에 관한 물리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 장치가 질량·시간 등의 물리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실험 장치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다른 물리 법칙들에 의해 보장되며, 이 물리 법칙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실험 장치와 물리 법칙이 필요하다. 이러한 순환 구조 속에서 결국 물체의 가속도에 관한 물리 법칙은 그 정당성을 스스로가 보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콰인은 이처럼 모든 명제가 상호 의존적인 맥락 속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개별 명제들의 진리성이 상대화되므로 이론의 궁극적 토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로티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과 콰인의 전체론을 결합하여, 모든 명제의 의미는 그것이 속한 특정 맥락의 게임 규칙에 의해서만 규정되며 그 맥락을 벗어나면 의미를 잃는다고 주장하였다. 현대 인식론은 인간의 마음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며, 이 거울에 반영된 확실한 표상만이 인식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로티는 이러한 거울개념을 부정하면서, 현대 인식론이 진리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기초에 근거해야 한다는 토대주의적 관념에 얽매어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진리가 고정된 실재가 아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므로,

명제는 절대적 토대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현상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이라는 실용적 가치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철학을 하나의 언어 게임으로 보고 그 유용성을 평가하는 해석학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로티는 ㉢해석학의 실용성이 전체론적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해석학은 다양한 형태의 담론들을 인정하고, 이를 생산하고 전승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담론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해 나간다. A를 이해하기 위해 B를 참조하고, B를 이해하기 위해 C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담론들 간의 상호 이해를 수반하는 해석학적 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석학은 분석 철학이 비합리적이라며 배제했던 담론들을 전체론의 틀 안에 복원시킬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담론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로티에 의하면, 정의·자유·평등과 같은 자유주의 사회의 규범들은 다양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우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들을 절대적 토대로 삼기보다는, 그것들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철학은 합리성이라는 단일 기준을 고수하는 대신, 다양한 담론들 간의 대화를 통한 진보를 추구해야 한다. 이때 대화는 서로가 의미 있는 주제로 승인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로티의 해석학적 입장은 도덕적 상대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의 다원주의적 성격과 부합하며, 상호이해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철학적 관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세계화 시대에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이론으로서 의의가 있다.

1.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분석 철학은 이성적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고를 논리적으로 해명하려 하였다.
- ② 현대 인식론은 인간의 마음이 자연에 대한 확실한 표상을 담아낼 수 있다고 전제한다.
- ③ 콰인은 인간이 자연에 대해 지니고 있는 신념은 다른 신념과 독립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④ 로티는 철학적 명제의 가치가 현상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이라는 유용성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⑤ 로티는 자유주의 사회의 규범들이 생성되어 온 계보를 추적하면 그것들이 기반한 궁극적 토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2. 윗글의 '로티'의 관점에서,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명제가 지시하는 대상에 실재성을 부여하고, ㉡은 명제의 진리성을 상대화한다.
- ② ㉠에 의해 철학은 언어 게임이 되고, ㉡에 의해 게임의 규칙이 철학의 토대로 성립된다.
- ③ ㉠에 의해 언어 게임의 구축물인 진리가 도출되며, ㉡에 의해 이러한 진리가 맥락을 형성한다.
- ④ ㉠은 게임의 규칙이라는 절대성을, ㉡은 담론 간의 상호 의존이라는 상대성을 철학에 부여한다.
- ⑤ ㉠은 진리가 특정 맥락 속 상호 작용의 결과이며, ㉡은 담론 간의 상호 관계가 이러한 맥락을 형성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 (나)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카르나프에 따르면, 명제는 과학적인 관찰에 의해 엄밀히 검증 가능하다. 그는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명제는 검증 과정을 거쳐 사실로 판명된 원자 명제와, 원자 명제들에 논리적인 조작을 가해 도출되는 복합 명제들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연에 대한 모든 기술은 원자 명제와 복합 명제들로 환원 가능하다고 보았다.

(나) 하버마스는 인간의 행위가 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인간의 사회적 행위 중 합의 형성을 지향하는 의사소통 행위에 주목하였다. 그에 따르면, 개인은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정교한 공통의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 행위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적 의사소통의 실천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탐색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발견된다고 보았다.

- ① (가):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명제는 언어 게임의 결과로서 존재할 뿐 그러한 명제가 지시하는 자연과학적 사실이 실재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가): 콰인에 따르면, 과학적인 관찰에 근거해 명제를 검증하는 토대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자연에 대한 기술이 원자 명제와 복합 명제로 환원되지 않는다.
- ③ (가): 콰인에 따르면, 어떤 원자 명제에 대한 검증이 다른 원자 명제에 의존하는 관계가 연속되므로, 각각의 원자 명제는 결국 자신에 의해 검증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 ④ (나): 로티에 따르면, 일상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관계는 당사자 간의 상호 승인을 전제하므로, 일상적 의사소통이 실천되면 명제의 객관적 타당성을 탐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⑤ (나): 로티에 따르면, 합의 형성을 지향하는 의사소통 행위가 필연적이지 않으므로,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대한 탐구보다 합의 형성을 지향하는 규범 체계가 형성된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4. ㉗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담론들 간의 상호 의존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토대의 확실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② 해석학적 순환이 이루어지는 해석의 체계가 드러나게 됨으로써, 체계라는 맥락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③ 담론들이 문화적으로 유통되어 사회적으로 기능하는 현상을 탐구하게 함으로써, 합리적 담론과 비합리적 담론을 구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④ 전체론에 기반하여 각각의 담론을 인정하고 그들 간의 상호 의존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상이한 유형의 담론 사이에 대화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 ⑤ 상이한 담론들 사이의 관계를 경쟁 관계가 아닌 의존 관계로 치환함으로써, 인간이 지닌 마음의 상태를 명제로써 정밀하게 기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수능특강 정답 해설]

1	⑤	2	⑤	3	④	4	④
---	---	---	---	---	---	---	---

1. ⑤

지문에서 로티는 자유주의 사회의 규범들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추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5번 선지에서는 '생성되어 온 계보를 추적한다'고 의역해 제시했다. 지문의 표현과 선지를 올바르게 연결했다면 선지 앞부분이 맞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정답의 근거는 선지 뒷부분에 있다. 로티는 특정한 규범을 절대적 토대로 삼는 개념 자체를 부정했으므로, 로티가 궁극적 토대에 도달하려 시도했다는 선지는 틀릴 수밖에 없다.

2. ⑤

언어 게임론은 진리를 언어 게임이라는 특정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전체론은 수많은 담론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존재한다고 이해했다.

로티는 이 두 이론을 결합해 진리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존재하며 이는 여러 담론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전체론이 주장하는 담론들의 상호관계망이 언어 게임론이 주장하는 언어 게임론 속 일종의 언어 게임이 된다는 사실을 끌어낼 수 있다.

3. ④

선지 판단에 <보기>의 중요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이다. (나)의 하버마스는 객관적 타당성 (=진리)를 실재하는 것으로 보았고, 로티는 그렇지 않았다. 4번 선지를 뚫는 가장 중요한 논리는 로티가 명제의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성을 부정했다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4. ④

해석학의 실용성이 전체론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담론들의 상호 의존성을 이해함에서 시작한다. 정확하게 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4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다.



[2011학년도 고2 11월 모의고사]

인간은 자신이 가진 특정한 능력을 통해 궁극적 진리를 인식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긍정하는 입장을 서양철학에서는 표상주의라고 한다. 표상주의는 근대 인식론의 바탕을 이루며, 서양철학의 주류를 형성해 왔다. 이와 달리 신실유주의 철학자 로티는 표상주의를 비판한 '반(反)표상주의'를 통해 서양철학의 새로운 방향을 ㉔ 모색하였다.

로티의 반표상주의는 넓은 의미로 '반(反)플라톤주의'라고 할 수 있다.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가 진정한 진리의 세계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이데아를 모사(模寫)한 거짓 세계라고 보았다. 이렇게 진리의 세계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존재한다고 보는 플라톤의 관점은 서양철학의 역사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관점이 되었다. 이후 플라톤의 전통을 ㉕ 계승한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진리의 세계를 비출 수 있는 '거울'과 같은 본질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로티는 이들이 진리의 세계를 비춘다고 믿었던 거울이 비춘 것은 사실은 자신의 모습이며, 이들이 이야기한 진리는 초역사적이고,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역사적이고, 개별적이며, 상대적인 것임을 철학의 흐름 속에서 확인하였다. 즉 로티는 이들의 거울에 비친 진리가 저마다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 따라서 로티는 거울과 같은 인간의 능력은 존재하지 않으며, '거울이미지(mirror image)'는 우연히 발생한 하나의 비유에 ㉖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로티는 이처럼 우리가 궁극적 진리를 비출 수 없다면 결국 철학은 세계에 대해서 각자의 시각으로 끊임없이 재서술하는 문학적인 작업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데 소설 쓰기나 시 쓰기와 같은 문학작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로티는 새로운 철학적 방향으로 ㉗ '문학적 문화(literary culture)'를 제안했다.

로티가 말하는 문학적 문화는 관념적 차원에서 궁극적 진리를 추구하는 대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물음들을 통해서 ㉘ 탐색할 수 있는 참된 의미들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다. 또한 누구나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참된 의미들을 창조하고, 이를 타자에게 강요하지 않는 문화이다. 로티는 문학적 문화를 통해 사적 영역에서는 자신의 인식과 신념을 끝없이 쇄신하고, 공적 영역에서는 구성원 간의 대화를 통해 다른 구성원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인정하면서 '우리'라는 연대성을 ㉙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표상주의는 서양철학의 주류를 형성해 왔다.
- ② 반표상주의는 플라톤주의와 대립되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
- ③ 플라톤의 전통을 계승한 철학자들은 인간에게는 진리를 비추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 ④ 로티는 문학적 문화를 관념적 차원에서 궁극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았다.
- ⑤ 로티는 플라톤의 전통을 계승한 철학자들이 내세운 진리가 저마다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2. ㉗의 특성이 나타난 현대인의 삶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속 집단 속의 삶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을 중시하는 모습
- ② 유행을 무분별하게 따르기보다는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모습
- ③ 행동이 앞서서 실천적 삶보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우선시하는 모습
- ④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구성원 간의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하는 모습
- ⑤ 지속적인 인간관계보다는 일회적이고 표면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모습



3. 위 글의 '로티가 <보기>를 읽고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듀이는 삶의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탐구'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듯 탐구의 대상도 끊임없이 달라지며, 문제는 같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런 점에서 듀이는 서양 철학자들이 진리라고 말해 왔던 것들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① 듀이는 플라톤주의 철학의 전통에서 벗어나 있군.
- ② 듀이는 연대의식을 추구함으로써 문제 상황을 발견하고 있군.
- ③ 듀이는 진리의 절대성과 보편성을 부정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군.
- ④ 듀이가 말한 삶 속의 문제 상황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는 문학적 작업이 필요할 수 있겠군.
- ⑤ 듀이가 문제 해결의 도구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한 것은 자신이 창조한 의미를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 문화와 관련이 있군.

4. ㉠~㉥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알려주었다 ② ㉡ : 이어받은 ③ ㉢ : 지나지 않은
- ④ ㉣ : 찾을 ⑤ ㉤ : 넓혀



[2011학년도 고2 11월 모의고사 정답과 해설]

1	④	2	④	3	②	4	①
---	---	---	---	---	---	---	---

1. ④

로티가 말한 ‘문학적 문화’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다시 말해 우리 가까이 있는 실용적인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하는 과정을 통해 얻는 의미들에 초점이 있다. 이는 앞서 지문에 제시된 플라톤의 거울 이미지에 정확히 반대되는 입장으로, 궁극적인 진리의 존재를 부정하며 개인이 만드는 각자만의 인식을 추구했다. 대립하는 두 개념(궁극적 진리 추구 vs 궁극적 진리 부정)을 이해했다면 4번 선지의 ‘궁극적 진리를 추구’가 정답의 열쇠가 된다.

1번과 2번 선지는 표상주의의 개념을 자세히 모르더라도 지문 초반부에 제시된 정답의 근거를 잡고 빠르게 지울 수 있는 선지들이므로 참고하면 좋겠다.

2. ④

1번 문제의 해설을 이해했다면, 로티의 주장이 기존 집단적 통일성을 강조하던 학계의 흐름에서 개인의 영역으로 진리의 의미를 축소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었을 것이다. 이는 인간 각자가 가진 의견과 생각을 배려받는 문화로 이어지고, 4번 선지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개인과 집단의 이분법적 개념에 매몰된다면 1번 선지에 휩쓸릴 수 있다. ‘왜’ 집단이 추구하는 궁극적 진리보다 개인적 의미가 중시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3. ②

〈보기〉에 제시된 듀이는 로티의 주장과 비슷한 논리를 전개했다. 플라톤주의 철학과 반대로 궁극적인 진리를 회의적으로 바라보았으며 일상의 문제 상황 해결을 중시했다. 다만, 사람마다 다른 고유의 인식을 배려하고 존중함으로써 연대하는 태도를 중요시한 로티와 달리 〈보기〉의 듀이는 개인 간의 대화와 소통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지 않았다.

4. ①

㉔의 ‘모색하다’는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다.’는 의미로, ‘알려주었다’와는 거리가 있다.

〈연계 포인트〉

이 지문은 로티가 주장한 실용적, 자유주의적 진리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중요한 기출이다. 로티의 관점이 왜 실용주의적인 관점을 띠는지, 또 궁극적인 진리가 어떤 흐름에서 긍정되고 부정되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지문이므로 꼭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2012학년도 9월 모의고사]

우리는 일상생활이나 학문 활동에서 ‘진리’ 또는 ‘참’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예를 들어 ‘그 이론은 진리이다’라고 말하거나 ‘그 주장은 참이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진리’라고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에는 대응설, 정합설, 실용설이 있다.

대응설은 어떤 판단이 사실과 일치할 때 그 판단을 진리라고 본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가서 보라’라는 말에는 이러한 대응설의 관점이 잘 나타나 있다. 감각을 사용하여 확인했을 때 그 말이 사실과 일치하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것이다. 대응설은 일상생활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때 흔히 취하고 있는 관점으로 ㉠우리가 판단과 사실의 일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여긴다. 우리는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지각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책상이 네모 모양이라고 할 때 감각을 통해 지각된 ‘네모 모양’이라는 표상은 책상이 지니고 있는 객관적 성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책상은 네모이다’라는 판단이 지각 내용과 일치하면 그 판단은 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응설은 새로운 주장의 진위를 판별할 때 관찰이나 경험을 통한 사실의 확인을 중시한다.

정합설은 어떤 판단이 기존의 지식 체계에 부합할 때 그 판단을 진리라고 본다. 진리로 간주하는 지식 체계가 이미 존재하며, 그것에 판단이나 주장이 들어맞으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체의 운동에 관한 그 주장은 뉴턴의 역학의 법칙에 어긋나니까 거짓이다’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뉴턴의 역학의 법칙을 진리로 받아들여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진위를 판별한 것이다. 이러한 정합설은 새로운 주장의 진위를 판별할 때 기존의 이론 체계와의 정합성을 중시한다.

실용설은 어떤 판단이 유용한 결과를 낼 때 그 판단을 진리라고 본다. 어떤 판단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 보고 그 결과가 만족스럽거나 유용하다면 그 판단은 참이고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은 창의력을 기른다’라고 판단하여 그러한 학습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 보았다고 하자. 만약 그러한 학습 방법이 실제로 창의력을 기르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았다면 그 판단은 참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 된다. 이러한 실용설은 새로운 주장의 진위를 판별할 때 결과의 유용성을 중시한다.

1. 위 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②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밝히고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현상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④ 시대적 흐름에 따른 핵심 개념의 변천 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 ⑤ 다양한 관점들을 소개하면서 이를 변증법적으로 절충하고 있다.

2. ㉠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리의 지식이나 판단은 항상 참이다.
- ② 우리의 감각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
- ③ 우리는 사물의 전체를 알면 부분을 알 수 있다.
- ④ 우리의 주관은 서로 다른 인식 구조를 갖고 있다.
- ⑤ 우리의 감각적 지각 능력은 대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3. 위 글에서 <보기>의 ㉡와 ㉢에 각각 관련되는 것은?

—<보 기>—

○ 17세기에 스테노는 관찰을 통해 상어의 이빨과 설석(舌石)이라는 화석이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사실을 근거로 그는 화석이 유기체에서 기원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

○ 20세기 초에 베게너는 지질학적 조사 결과를 근거로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가 과거에 한 대륙이었다가 나중에 분리되었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당시의 지질학자들은 대륙은 이동하지 않는다는 통설을 근거로 그의 주장이 틀렸다는 ㉢판단을 내렸다.

- | ㉡ | ㉢ |
|-------|-----|
| ① 대응설 | 정합설 |
| ② 대응설 | 실용설 |
| ③ 정합설 | 대응설 |
| ④ 정합설 | 실용설 |
| ⑤ 실용설 | 정합설 |



4. 위 글에서 언급한 여러 진리론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학이나 논리학에는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참인 명제도 있는데, 그 명제가 진리임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대응설에서는 발생한다.
- ②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론 체계가 아직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그 판단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정합설에서는 발생한다.
- ③ 새로운 주장의 진리 여부를 기존의 이론 체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기존 이론 체계의 진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정합설에서는 발생한다.
- ④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관념은 그것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실용설에서는 발생한다.
- ⑤ 실제 생활에서의 유용성은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식의 진리 여부가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실용설에서는 발생한다.



[2012학년도 9월 모의고사 정답과 해설]

1	①	2	②	3	①	4	④
---	---	---	---	---	---	---	---

1. ①

대응설의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 책상과 네모 모양이라는 표상을 활용하였다. 지문을 읽을 때 예시를 이해에 적극 활용하는 태도로 접근하면 1번 선지를 보자마자 고를 수 있을 것이다.

5번 선지의 경우, 변증법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세 관점이 병렬적으로 '제시'되는 것이지 하나로 '절충'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했다면 헛갈리지 않을 것이다.

2. ②

대응설은 인간의 정확한 지각이 정확한 판단으로 이어져 진리의 구분이 가능하다고 본다. ㉠은 '지각한 사실로부터 도출한 정보가 진리 판단으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이전 단계인 '대상의 지각이 완벽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로 붙게 된다.

3. ①

스테노의 예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관찰', 베게너의 예시에서는 '통설'이다. 관찰이란 지각을 통해 얻는 정보를 통해 진리를 판가름하는 방식이며 통설이란 기존에 존재하던 지식 체계를 의미한다. 이에 각각 대응설과 정합설을 짝지어주면 된다.

4. ④

대상을 감각으로 검증하는 입장은 대응설이지만 실용설과 결부시켜 설명한 4번 선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정답이 된다.

나머지 선지들의 정오는 논리적 흐름을 따라가면 판단하기 어렵지 않다. 정합설의 '기존 지식 체계'는 어떻게 설정되는지, 실용설의 '유용한 결과'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와 같은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이다.

〈연계 포인트〉

진리와 진리를 찾기 위한 수단인 진리론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기 좋은 가벼운 지문이다. 진리 철학이라는 테마에 익숙해지는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2020학년도 7월 모의고사]

언어 분석철학자인 카르납은 어떤 언명이 어법에 맞지 않거나 관찰 가능한 경험적 문장으로 환원될 수 없을 경우에 그 언명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이를 '사이비 언명'이라 부르며 배척하였다. 예를 들어 다음의 두 문장을 살펴보자.

- I. 카이사르는 그리고(Cesar is and).
- II. 카이사르는 소수이다(Cesar is a prime number).

'I'는 어법에 맞지 않아서, 'II'는 참과 거짓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관찰 사실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이비 언명'에 해당한다. 카르납은 특히 II와 같은 유형의 사이비 언명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하이데거와 같은 철학자들이 언어를 통해 형이상학적인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고 본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하이데거는 '무(無)란 무 자체가 무화(無化)한 것으로서 존재인 동시에 존재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언명을 통해 '무'도 관찰 가능한 대상임을 말하고자 했다. 그러나 카르납은 이러한 하이데거의 언명에서 원래 '아무것도 없음'을 뜻하는 문자적 의미의 '무'가 '존재인 동시에 존재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은유적 의미로 슬그머니 바뀌었음을 지적했다. 즉 카르납은 '무'에 대한 하이데거의 언명이 은유의 개입으로 인해 문자적인 의미가 은유적인 의미로 아무 이유 없이 변경된 사이비 언명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언어가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던 카르납은 세계의 진리를 밝히기 위해 언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언어를 문자적 언어와 은유적 언어로 나누고 전자는 과학과 같은 객관적 사실의 영역에, 후자는 문학과 같은 정서적 표현의 영역에 각각 고정해 두고자 했다. 카르납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 안에서 세계의 진리를 설명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에게 시인들의 은유적 언어는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이 무의미한 대상에 불과했으며, 오직 문자적 언어만이 세계의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라 여겼다.

이러한 카르납의 언어관과 달리 실용주의자 로티는 언어란 역사적 우연성의 산물로, 거기에는 어떤 고정적 의미나 초월적 진리가 담겨있을 수 없다는 다원주의적 관점을 보여준다. 언어의 의미는 대상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우연하게 정해지는 것으로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로티는 객관적인 문자적 언어와 주관적인 은유적 언어는 명확히 구분될 수 없으며 구분해 줄 만한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언어를 구분하는 것은 대상의 본질을 지시하는 하나의 특별한 언어가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인데, 로티는 이러한 생각이 언어의 우연적 속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또한 은유적 언어는 그것이 사용된 특정한 맥락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일 뿐 언어 자체가 은유적인 본질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로티는 언어가 세계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어적 서술들의 옳고 그름만 서로 비교할 수 있을 뿐, 끝내 세계의 옳고 그름을 제시할 수는 없음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결국 로티는 ㉠옳다고 여겨지는 어떤 언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언명이 주어진 상황을 드러내는 데 적절하다는 것을 특정 시대의 전통과 공동체가 승인한다는 의미일 뿐 문화적, 시대적 배경을 초월하여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이렇게 세계에 관해 우리가 밝히는 것이 세계와 언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서술하는 언어끼리 비교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문자적 언어가 은유적 언어보다 그 진리에 더 부합한다고도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로티는 이러한 언어관을 바탕으로 우리가 서술해 나가는 진리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재서술되면서 변화하는 것임을 밝히고자 했으며, 그런 점에서 철학적인 작업을 엄밀하고 체계적인 학문으로서보다는 문학적이고 시적인 작업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로티는 개인이 사적 공간에서 자신의 고유한 삶에 대해 자신만의 어휘로 서술해 나가는 시인과도 같은 작업을 통해 저마다의 진리가 우연적이고 상대적으로 존재하게 된다고 보았으며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재서술해 나가는 개인을 일컬어 ㉡아이러니스트라고 불렀다. 로티는 아이러니스트의 작업이 자기완성의 길일 뿐 이상적인 인간이 되는 것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그 개인적 진리를 공적 영역으로 끌고 나와 모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강요할 수도 없다고 단정했다. 로티의 관점에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궁극적 진리를 발견하고자 했던 과거의 수많은 철학자들 역시 아이러니스트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들이 찾은 진리 또한 사적 영역에 한정시키고자 했다. 그런데 아이러니스트는 사적인 영역에만 갇혀 공적인 것에 대해 무관심해질 수 있으므로, 로티는 사적 영역에서 아이러니스트의 작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공적 영역에서는 자유주의자가 될 것을 촉구했다. 그가 말하는 ㉢자유주의자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제도와 관습의 부정적인 측면을 고쳐 나감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줄여 나가는 연대성을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듯 로티는 보편적 기준이 적용될 수 없는 사적인 영역과 시대의 보편적 기준에 의해 지배되는 공적인 영역을 분리함으로써 진리 탐구의 과정과 사회적 문제 해결의 과정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했다.



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카르납은 하이데거의 언명이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에서 증명될 수 있다고 여겼다.
- ② 로티는 언어의 우연성 안에 세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 ③ 카르납은 언어 자체의 의미에, 로티는 언어가 사용된 특정한 맥락에 주목했다.
- ④ 카르납은 문자적 언어가, 로티는 은유적 언어가 세계의 진리를 더 잘 드러낸다고 여겼다.
- ⑤ 카르납과 로티는 모두 객관적 언어와 주관적 언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고 보았다.

2. 윗글에 나타난 '카르납'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최근 죽은 채 발견된 향유고래를 부검한 결과 뱃속에서 100kg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고, 향유고래를 부검한 과학자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향유고래가 죽었다'라고 밝혔다.
- 철학자 니체는 종교의 초월성과 절대성, 즉 '신'으로 통칭되는 형이상학적 가치가 인간을 무력하게 한다고 보고, '신은 죽었다'라는 언명을 통해 신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음을 말하고자 했다.

- ① 향유고래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죽었다는 것은 관찰 가능한 사실이므로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향유고래가 죽었다'라는 진술은 유의미한 언명에 해당하느군.
- ② '신'으로 통칭되는 형이상학적인 가치는 생물이 아니어서 죽음을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말은 무의미한 언명에 해당한다고 봐야겠군.
- ③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말은 원래 '생명이 소멸되었음'을 의미하는 '죽었다'라는 단어에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음'이라는 은유적 의미가 개입된 언명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말은 종교의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가치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거짓으로 판단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이비 언명에 해당한다고 봐야겠군.
- ⑤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향유고래가 죽었다'라는 진술에서 '죽었다'는 객관적 사실의 영역에 해당하지만, '신은 죽었다'라는 말에서 '죽었다'는 객관적 사실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겠군.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한 반응을 예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시인 한용운은 기미독립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후 '당신을 보았습니다'라는 시를 썼다. 이 시에서 한용운은 ㉠'운갓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시지내는 연기'라는 표현을 통해 당시의 윤리와 도덕, 법률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약자를 보호하는 데 쓰이지 못하고, 권력을 지닌 자나 재력을 소유한 자를 위해 봉사하는 구실밖에 하지 못하는 당대의 모순적 현실을 비판하고자 했다.

- ① 카르납은 ㉠가 시의 한 구절이라는 점에서 ㉠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볼 것이다.
- ② 카르납은 ㉠가 정서적 표현의 영역에 해당하는 언어이므로 ㉠를 통해서 세계의 진리를 드러낼 수 없다고 볼 것이다.
- ③ 로티는 ㉠를 구성하고 있는 시어들이 드러내는 의미가 우연하게 정해진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 ④ 로티는 ㉠가 한용운에게 개인의 진리로 존재하기 위해 한용운과 동시대를 살았던 다른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여길 것이다.
- ⑤ 로티는 윤리와 도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당대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볼 것이다.

4. 로티의 관점에서 ㉡과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 개인은 ㉡으로서 자신의 고유한 삶에 대해, ㉢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 주목할 것이다.
- ② 한 개인은 ㉡으로서 사적 영역에서 서술한 진리를, ㉢으로서 공적 영역에서 실현해 내는 삶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 ③ 한 개인은 ㉡으로서 자기완성에 이를 수 있을 것이고, ㉢으로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한 개인은 ㉡으로서 자신만의 언어로 개인적 진리를 찾을 것이고, ㉢으로서 연대성을 실천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이다.
- ⑤ 한 개인은 ㉡으로서 자신을 서술하며 진리를 찾을 것이고, ㉢으로서 잘못된 제도를 바꾸기 위해 대화와 타협을 할 것이다.



5. ㉗에 대한 로티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㉗이 옳다는 것은 세계의 옳고 그름과는 무관하게 성립하는 것이다.
 - ② ㉗은 다른 시대나 다른 사회에서 옳지 않은 서술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
 - ③ ㉗은 다른 언어적 서술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절대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 ④ ㉗이 옳다고 인정받는 것은 그것이 문자적 언어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이 없다.
 - ⑤ ㉗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의 승인에 의하여 옳다고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2020학년도 7월 모의고사 정답과 해설]

1	㉓	2	㉔	3	㉔	4	㉒
5	㉓						

1. ㉓

카르납은 언어가 세계를 담고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언어의 의미에 따라 언어를 문자적, 은유적 언어로 구별했다. 반대로 로티는 언어 자체에는 핵심적인 의미가 없으며 이를 사용하고 구사하는 인간 집단이 만들어낸 사회적 맥락이 언어를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가장 잘 담고 있는 3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다.

1번 선지는 로티가 하이데거의 언명을 사이비 언명으로 치부했다는 점에서 성립하지 않고, 5번 선지는 카르납이 너무나 명시적으로 두 속성의 언어를 구별했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 두 선지를 가장 빠르게 지워낼 수 있을 것이다.

2. ㉔

사이비 언명은 지문의 제시된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단순히 관점에 차이에 따라 참·거짓이 나뉘는 진술이 아니라 아예 이러한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 언명을 의미한다. 즉 종교적 관점에 따라 거짓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신은 죽었다'라는 명제가 사이비 언명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2번 선지가 명확히 드러내듯이 카르납은 형이상학적인 대상을 언어로 드러낼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니체의 예시는 무의미한 언명이라고 할 수 있다.

3. ㉔

로티가 이야기한 아이러니스트 개념은 개인 스스로 자신만의 진리를 형성하고 추구하는 인간을 의미하며, 이 진리는 집단적인 성격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동시대 사람들의 의견이나 견해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㉓는 문학적으로 사용된 정서적 표현이므로 카르납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은유적 언어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1번과 2번 선지를 빠르게 골라낼 수 있다.

4. ㉒

로티의 자유주의자 개념은 타협을 통해 사회의 부정적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긍정적인 자세를 갖춘 인간을 통칭한다. 이는 아이러니스트의 개인적 면모를 '보강'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으로, 아이러니스트적 태도와 맞물려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로티는 개인적 진리를 개인의 영역에만 존재하도록 두고 집단의 영역으로 확장시키지 않도록 했다. 자연스럽게 두 개념의 혼동을 유도하는 2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다.

선지를 거시적으로 파악해보면, 1,3,4,5번 선지는 전부 두 개념이 연결되지 않고 따로 노는 것을 볼 수 있다. 심표를 기준으로 앞뒤에 제시되는 두 정보가 연결되는지 구별되는지 파악해보면 답을 빠르게 골라낼 수 있다.

5. ㉓

옳다고 여겨지는 어떤 언명이란, 시대를 막론하고 부여받는 '절대성'을 가진 언명이 아니라 그 시대 그 사회의 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받은 언명을 가리킨다. 어떤 방식을 통해 서라도 어떤 명제나 논의는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이 로티의 견해이므로 3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다.

〈연계 포인트〉

명제와 언어에 대한 실용적 접근, 사회 맥락을 통해 이해하는 '역사적 우연성'을 가지는 언어의 성질 등 수능특강 본문과 유사한 개념이 두루 등장한 좋은 지문이다. 주제에 적응하고 개념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